

# 1억2000만년 전 육식공룡 화석 국내 첫 발견

### 문화재청, 경남 하동군 가덕리 중생대 백악기 지층 몸길이 고작 약 28cm '초소형'...세계적으로도 희귀

한반도에도 육식 공룡의 대명사격인 티라노사우루스가 살았을까? 경남 하동에서 1억2000만 년 전 육식 공룡의 골격 화석이 국내 최초로 발견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의 중생대 백악기 지층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육식 공룡의 골격 화석 1점을 발견, 분석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화석은 지난달 8일 낚시를 하러 갔던 주민이 우연히 발견해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연구소 측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조사와 분석을 한 결과 육식 공룡인 수각류(獸脚類 : 티라노사우루스처럼 두 발로 이동하며, 날카로운 이빨로 육식했던 공룡)의 골격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견된 공룡 골격 화석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적 없는 수각류 공룡의 두개골과 아래턱을 포함하고 있는 것

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크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공룡 화석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수석 중국학술원 교수와 케빈 가오 베이징대 교수로부터 두개골 등으로 추정된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골격 화석 중 두개골의 크기는 길이 약 5.7cm, 폭 2.6cm이며, 보존된 골격 전체의 몸길이는 약 28cm다. 생존했을 시기의 전체 몸길이는 50cm도 안 되는 초소형 공룡이어서 희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척추와 갈비뼈가 연결된 상태로 발견돼 이들이 화석화되는 과정을 규명하는 것도 흥미를 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골격 화석 외에 또 하나의 개체로 보이는 골격 화석도 함께 확인돼 조사가 끝나면 두 마리로 밝혀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하동 가덕리 지역의 지층은 중생대 백악



경남 하동서 주민에 의해 발견된 1억2000만 년 전 육식 공룡 화석. <문화재청 제공>

기 전기의 하산동 층에 해당한다. 하산동 층은 1억1000만~1억2000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전기에 해당하는 지층으로, 국내에서는 용각류 공룡인 부경고사우루스와 익룡의 이빨 화석 등이 발견된 바 있다. 연구소는 발견된 공룡뼈에 대한 화석 전

문 보존처리 작업과 함께 발견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에 발표함과 동시에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 특별기고

### 환경단체, 감시 활동 중요하지만 원전 지역주민 피해도 없게해야

원자력 안전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 모두가 원전의 위험성을 목격하게 됐다. 이후 국내에서는 각종 원전부품 비리문제가 터져나와 국민적 불안에 휩싸인 가운데 원전의 운영에 있어 실제 안전대책을 제대로 추진하는지 원전 규제기관과는 별도로 시민 차원의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



이정운

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는 시민단체의 발표대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을 의미하며 이 정도로 "방사능이 오염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원전 주변뿐 아니라 더욱 폭 넓은 여타 지역의 충분한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함께 비교,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원자력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활동은 시민 감시의 일환으로 시민의 의무라고 장려되는 일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과학기술에 근거한 합리적인 분석에 기초하여야 함에도 시민의 비전문성을 '약용'하여 '방사능 오염이 되었다'는 막연한 추측성 우려를 표명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통 시민들의 원전 불안감을 촉발하게 되었고, 이 같은 행위는 원전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원자력 안전과 미래' 등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원전의 안전을 해치는 또 하나의 위험요소로 불려져야 하는 판단이다.

따라서 현재 한빛원전 안전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이와 같은 일부 단체의 무책임하고 막연한 추측성 우려로 국민적인 불안감을 조장하고, 원전주변 지역에 대한 인식과 지역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을 심각하게 우려를 표시한다.

앞으로는 시민·환경단체가 원전 관련 환경분석 발표를 할 경우 보통시민이나 전문가 등 모두가 이해할 만한 수준의 자료를 기초 삼아 무고한 원전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원전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환경단체 관계자의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대한다.

<한빛원전 안전성 검증단 소속 전문가>

원자력 안전은 물리적으로 안전을 유지하여야 하지만 '심리적인 안전'도 중요하다는 게 원자력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원전설계 국산화에 참여한 다수 인력이 포함된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전문가가 검증작업에 참여하여 주민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원전의 실제 안전개선에 주민의 심리적인 안전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등 전문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원전주변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내용은 아쉬움을 남겨놓고 있다. 원전 주변의 오염측정 결과인 1.6Bq/Kg은 허용기준의 1/50도 안 되며 자연 방사선 수준에도 못 미친다. 특히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체에서도 4000 Bq/Kg 수준의 방사능을 보유하고 있어 그 미약함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 영암 월출산서 멸종위기종 1급 붉은박쥐 발견

영암 월출산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붉은박쥐가 발견됐다.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452호인 붉은박쥐를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 내 식생 조사 중 나무에 매달려 있는 붉은박쥐를 발견했다.

붉은박쥐는 암수의 성비가 매우 불균형적이고, 환경 오염과 서식지 파괴로 개체 수가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세계적인 희귀종이다. 황금박쥐라고 흔히 불리기도 한다. 붉은박쥐는 여름에는 산이나 숲 속에서 지내고 겨울에는 습도가 높고 따뜻한 동굴에서 동면하는 습성이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 세계적 환경운동가 구달 박사 한국 방문

### 평생 침팬지 연구·동물사랑의 열정의 뜻 기려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서 '제인구달 길' 명명식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이자 동물학자인 제인 구달(사진) 박사가 지난 24일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을 방문했다.

구달 박사는 이날 오전 국립생태원에서 열린 '제인 구달 길' 명명식에도 참석했다. 국립생태원(원장 최재천)은 침팬지 연구와 동물 사랑을 위한 열정으로 평생을 살아온 제인 구달 박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이 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제인 구달 길은 1km 숲 속 구간으로, 국립생태원 내 생태학자의 길 시리즈 중 첫 번째로 마련됐다. 길 주변에는 제인 구달 박사가 지난 1960년대 아프리카 탄자니아 곰베발림에서 머물 때 사용하던 것과 같은 천막이 설치됐다.

숲길로 된 제인구달 길은 걷는 사람에게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느낄 수 있는 생태교육장으로 활용된다.

제인 구달 박사는 지난 1983년 영국 태생의 침팬지 연구가로 '인간이 아닌 동물도 도구를 쓴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낸 동물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제인 구달 박사는 이날 사전에 접수된 300여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희망의 씨앗'이라는 주제로 자연과 인간, 생명이 공존하는 미래를 위한 메시지



를 전했다.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은 "1960년 당시 26살 영국 여성인 제인 구달 박사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곰베 침팬지 보호구역으로 들어가 40년 넘게 침팬지 연구와 야생동물 관찰에 몰두했다"며 "오늘날 세계적인 환경운동가가 된 그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충분한 교훈이 되기에 이번 '제인 구달 길'을 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무등산 탐방객에 물품보관함 무료 대여 중심사지구 설치...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물품보관함 무료 대여서비스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 물품보관함 대여 서비스는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권 국립공원의 특성을 살려 탐방객 누구나 집(물품) 고민 없이 간편하게 무등산을 찾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물품보관함은 중심사지구 탐방지원센터에 설치돼 있으며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물품보관함은 당일 사용이 원칙이다.

물품보관함 설치는 단지 배낭, 핸드백 등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보관의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 산악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실족사고', '탈진' 등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게 공원사무소 측의 설명이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탐방지원센터에 오시면 공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물품도 무료로 맡길 수 있고 혈압측정, 바른 배낭꾸리는 법, 스틱 사용법, 산악 보행법 등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062-230-2021).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나주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가/무인텔**

- 나주시 중앙동 1층 상가 대지 423㎡ 건물93.6㎡, 의류매장, 식당 성업 중. 매 5억9천만
-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앞 4층 무인텔 대지 1,152㎡, 객실 20, 관리실 2, 매29억

**농지/임야**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3,514㎡(대지, 임야 포함) 4차선 국도변 2층 주거지역 자연녹지 매5억 2천만
- 나주시 송월동 택지지구 대지 778㎡ 상업지역 4차선 도로변 나주시청 앞 매 8억8천만
- 나주시 관정동 전 7,547㎡ 매립지 2차선 도로변 농업지역 매 3억2천만
- 일부 유실수 식재) 매 1억 7천만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임야 6,774㎡ 나주호 입구, 선산 적합 매5천만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 소나무 양호, 수원원, 선산 적합, 매 30억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 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매 17억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전 26,450㎡ 대봉 김나무 과수원, 자경, 임대시 고소득 보장 매 4억

**전원주택/상가/무인텔**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전 2,305 주택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된 혁신도시 인근 전망최상 매4억
-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전(자족 임야) 20,495 임대수익약 3억7천만
-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전 25,120 2차선 도로변 관리지역 투자유망 매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 ★4성급★ 호텔건물매매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피숍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한국감정원 감정가보다 20% 감액 매매 예정  
매매가액 상당 후 결정  
현장 답사 요청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연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868-5151

## 땅 매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  
답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3억 6천만원  
(중개 수수료 없음)

주인직매 010-8676-1900